2010 서울대 합격자

광주 정시·전남 수시 강세

광주, 고려고 12·과학고 11명…일고 등 공립도 약진

전남, 광양여·목포영흥·순천효천·영광 해룡고 두각

2010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광주는 정시모집, 전남은 수시모집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서울대가 발표한 '2010 최초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43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광주는 지역 및 기회균형 전형 등의 선발폭이 늘어난 수시에서 전년(100명)보다 26명이 감소한 74명이 합격한 반면 정시에선 69명(전년 4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표 참고〉

특히 과학고가 유일한 특목고인 광주의 이번 결과는 서울대 전체 합격자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이 903명(26.1%)으로 지난해 794명(24.2%)보다 1.9%포인트 증가한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학교별로는 고려고가 12명으로, 매년 광주지역 고교 중 가장 많은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해 온 과학고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광주에서 유일한 특목고인 광주과학고는 11명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10위권내에서 맴돌던 금호고가 3위(9명)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렸다.

이어 대광여고(7명), 인성고(6명), 숭덕고·대성여고·동성고 (각 5명)등의 순이었다.

'명문고 부활 프로젝트'를 가동중인 광주일고(2명)와 광주고, 전남여고(각 3명) 등 공립고교들도 지난해에 이어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남지역에선 수시 합격자를 대거 배출한 데 힙입어 고교 평준화 이후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합격자를 기록했다.

103명이 합격한 전남은 수시에서만 전년(65명)보다 23%가 증가한 80명이 합격했다. 이는 서울대 수시모집 총 정원인 2천30명의 3.9%(지난해 3.3%)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남지역 고교들의 서울대 수시 합격자만을 기준으로 볼때 전남과학고에서 14명이 특기자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광양여고, 영흥고, 순천효천고, 해룡고, 벌교고 등 5개교가 3명씩의 합격자를 냈다.

한편 이번 서울대 합격자 수는 최초 합격자 기준인 만큼 최종 합격자 수는 추가 합격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수

2010		2009	
고려고	12	과학고	13
과학고	11	고려고	9
금호고	9	대광여고	8
대광여고	7	동성고	6
인성고	6	금호고	6
숭덕고	5	문성고	6
대성여고	5	광덕고	5
동성고	5	국제고	5
조대부고	4	숭덕고	5
전대사대부고	4	전대사대부고	5
설월여고	4	서석고	4
국제고	4	숭일고	4
수피아여고	4	진흥고	4
동신고	4	살레시오고	4
정광고	3	설월여고	4
전남여고	3	정광고	4
서강고	3	조대부고	4
문성고	3	첨단고	4
중앙여고	3	수피아여고	3
숭일고	3	광주여고	3
석산고	3	인성고	3
서석고	3	광주제일고	3
동신여고	3	대성여고	3
광주고	3	전남여고	3
광덕고	3	조대여고	3
첨단고	2	광주고	2
조대여고	2	동신여고	2
운남고	2	동아여고	2
송원여고	2	보문고	2
송원고	2	살레시오여고	2
살레시오고	2	서강고	2
동아여고	2	송원고	2
광주제일고	2	송원여고	2
풍암고	1	전남고	2
전남고	1	경신여고	1
숭의고	1	대동고	1
상무고	1	동신고	1
살레시오여고	1	석산고	1
보문고	1	중앙여고	1
진흥고	1	상무고	1
예술고	1	풍암고	1
대동고	1	합계	146
경신여고	1		
합계	143		

정광고 교장 '무자격' 논란

지난해 8월 임기 만료 속 직무 수행하다 최근 추인

학교법인 정광학원(정광고)의 교장이 재임용 절차 없이 사실상 무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광고 A교장이 지난해 8월 2차례의 연임(8년)이 만료됐으나 이사회의 재연임 의결 없이 교장직을 수행하다가 최근에야 추인절차를 밟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2001년 9월 교장에 임용된 A교장은 2005년 8월말 첫 4년 임기를 마치고 2009년 8월말까지 연임됐다. 이 과정에서 2006년 7월 모든 교장은 4년 임기에 1차 중임만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됐으며, 다만 법 개정 이전 교장 임용자는 경과 조치를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말 정년 퇴임하는 A교장은 2009년 9월 재임용 절차를 밟으면 퇴임때까지 더 재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지난해 재임용 절차 없이 그대로 교장직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최근 학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추인 절차를 밟았다.

결국 A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여 동안 무자격으로 교장직을 수행한 셈이 됐고, 교장신분으로 학교 운영 과정에서 행사한 각종 행정적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동 그랑프리호텔 철거 지난달 31일 광주시 동구 학동 옛 그랑프리호텔에서 인부들이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상 7층 규모에 38개의 객실과 부대시설이 들어서있던 이 호텔은 경영난으로 지난 2007년 폐업신고 됐으며 건물 부지에는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억대 산양삼 보조금 '꿀꺽'…비자금 조성 뇌물

영암산림조합장 징역형

공무원 등 4명도

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수억원대 보조금을 가로채고 거액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산림조합 관계자들과 '뒷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불량' 공무원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단독 장정희 판사는 지난달 31일 산양산삼 구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영암군 산림조합장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 직원들과 납품업자로부터 현금, 승용차 등 4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영암군 6급 공무원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김씨와 공무원 박씨는 빼돌린 보조금의 액수나 뇌물의 크기, 조합의 최고 책임자와 공무원이라는 공적 신분 등을 감안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이 조합 상무 정모(53)씨와 과장 문모(54)씨, 사건 무마를 빌미로 돈을 받은 브로커 모모(55)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합장 김씨 등 조합 관계자 6명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1년여간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장뇌삼의 구매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6천여만원의 국가 및 군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나무, 장뇌삼 납품업자들과 짜고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든 뒤 이 가운데 2억2천여만원을 조합장 활동비와 공무원 뇌물,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박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조합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과 승용차 구입비 9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모씨는 "검찰청 관계자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안서 잇단 교통사고 5명 사망

지난달 30일 오후 2시10분께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신풍마을 앞길에서 김모(48·경기도 수원시)씨가 몰던 '03주39XX호' 액티언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1.5m 깊이의 웅덩이로 빠졌다.

이 사고로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박모(여·50·경기도 수원시)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9시20분께 무안군 망운면 송현보건소 앞길에서 나모(30·함평군 엄다면)씨가 몰던 '54주43XX호' 트라제 승용차가 마주 오던 '60루51XX호' 포텐샤 승용차(운전자 박모·47·무안군 운남면)와 충돌, 나씨와 함께 타고 있던 박모(여·30·무안군 운남면)씨, 포텐샤 운전자 박씨 등 3명이 숨졌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광양 저수지 빠진 승용차에 50대 시신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분께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사곡 저수지에 노모(56·광양시 중동)씨의 '55너14××'호 크레도스 승용차가 빠져 있는 것을 (사)한국수난안전협회 소속 잠수부 김모(46)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노씨는 승용차 뒷자석에서 숨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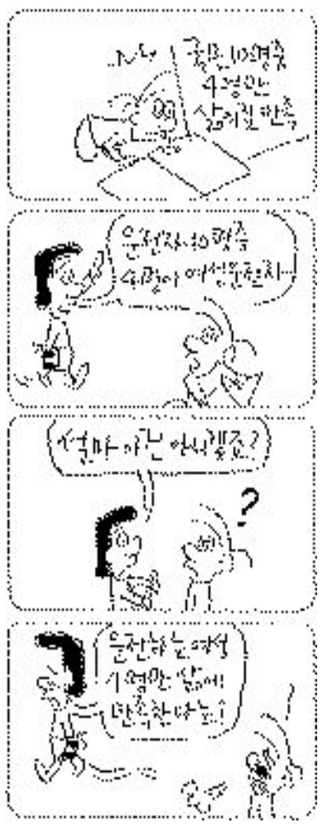
노씨는 지난달 14일 부인(52)에게 "정비를 마친 승용차를 찾아 오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두절돼 다음날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됐다.

노씨는 지난해 대기업 이사를 그만둔 뒤 우울증세를 보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노씨가 평소 힘들어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나원참 〈8019〉 김종두



행패 휴가군인 체포

광주동부경찰은 지난달 31일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1) 하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육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하사는 지난달 30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황금동 J극장 앞길에서 길을 가던 조모(19)군의 얼굴을 3차례 때린데 이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임모(46) 경사 등 2명의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방송인 백지연씨 "이혼 절차 마쳤다"

쌍나팔

○…방송인 백지연(46) 씨가 지난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백 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31일 공개.

○…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백지연이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송모 씨와 2007년 5월 이혼에 합의해 6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으며 2009년 초 미국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소개.

○…앞서 백 씨는 1998년말께 이혼한 적이 있으며 송씨와는 2001년 12월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법무법인 화우는 "백지연 씨가 많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으로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직접 알려 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 /연합뉴스